

TV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00 굿모닝! 채널A 1~2부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앙코르 MBC 스페셜 <당신의 다음 차는 무엇입니까>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00 MBC 뉴스투데이 35 특집다큐멘터리 <100대민족문화상징>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00 박종진의 쾌도난마(재) 50 김성주의 모닝카페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활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태양의 신부>
50 이슈 토크	10 한-EU 정상 공동기자회견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복희누나> 40 여유만만	3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50 개그시대(재)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세상	50 지구촌 뉴스		30 SBS뉴스
	00 행복학교실 55 바른일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수목드라마 <적도의 남자(재)>	00 대정경 천년 특별기획 <우신(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채널 A 뉴스 20 어린이 특선다큐 <우리집은 동물농장> 50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00 KBS 뉴스 12		00 MBC 뉴스 10 자원봉사희로프로젝트 나누면 행복스페셜	00 SBS 12뉴스 30 건강칼럼너
	00 오작고 형제들(재)		00 공감 특별한 세상 스페셜	30 한국의 숲 스페셜
00 뉴스 쇼 A타임 1~2부	00 KBS 뉴스 10 시사기획 창(재)	00 불후의 명곡 2	00 고향을 부탁해(재) 55 키즈이드벤처 <여기가 어디야? 베스트>	00 SBS 뉴스 10 세상살이 견 유래(재)
	00 아름다운 사람들(재) 5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30 KBS 뉴스타임 35 우당탕탕 캐릭터 극장(재)	45 영상다큐 퍼미	10 영상포럼 한국 100경
00 그 여자 그 남자(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소화제 2	05 달의 신나는 우주 여행 30 TV 유치원	00 뽀뽀뽀 아이즈 30 안남 토로비	00 주블스 30 꾸러기 탐구생활
0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두리몽실 몽계공화 30 인간극장 프리임	00 공감 특별한 세상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다큐로 만나는 세계
00 어린이 특선다큐 <우리집은 동물농장> 30 기발한 세계여행 지금바로 Right Now(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00 최중우돌 두 남자의 만국유랑기 50 생방송 전국시대	30 생방송! KBC투데이
40 월화미니시리즈 <K-POP 최강 사비아>	00 KBS 뉴스 7 30 스키우트	45 일일시트콤 <선녀가 필요해>	45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20 일일드라마 <내말 꽃님이>
5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당신은 뎀이>	20 스타 인생극장 50 비타민	15 일일연속극 <오늘만 같이라>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스포츠 뉴스 50 한밤의 TV연예
	00 KBS 뉴스 9	55 수목 드라마 <적도의 남자>	30 세상보기 시사각각 55 수목 미니시리즈 <대령 투하츠>	55 드라마 스페셜 <육박방 형제>
00 뉴스A	00 ABU-KBS 공동제작 다큐 <경흥비행> 50 아름다운 사람들			
00 글로벌한식토크 쇼킹	00 KBS 뉴스라인 40 수요기획	05 심리 버라이어티 쇼 <1억의 초대>	15 황금어장	15 짝
10 박종진의 쾌도난마(재)	25 KBS 뉴스 35 클래식 오디오세이		35 자원봉사희로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25 나이트라인

# '꿀통 영웅' 흑철 役 위해 15kg 감량

5년만에 안방극장 복귀하는 '히어로' 주연 양동근

OCN 신작드라마 '히어로'의 주연으로 5년만에 안방극장으로 복귀한 양동근은 자신의 캐릭터를 미국 코미디 영화 '헐콧'에 나오는 슈퍼히어로 '헐콧(윌 스미스 분)'에 비교했다. 양동근은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네오(키아누 리브스 분)' 같은 캐릭터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친구들은 미국 영화 '헐콧'의 주인공 같다는 얘기를 했다"며 "극중 '흑철'이 가족을 잃는 것은 네오와 비슷하긴 한데 아무래도 빈틈 있는 '꿀통 영웅'이다 보니 실상은 '헐콧'에 더 가까운 것 같다(웃음)"고 말했다.

그가 맡은 '흑철'은 대대로 범조인을 배출한 명문가 출신의 사고공치. 우연한 사고로 초능력이 생긴 그는 세상의 부조리에 눈을 뜨고 엉망이 된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나선다.

5년만에 복귀를 결정한 만큼 양동근은 캐릭터를 살리려고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다.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작가 선생님이 이런저런 시도를 하셨어요. 재미있게 풀어쓰는 것도 있다가 때로는 전형적인 영웅의 면모를 가져오시기도 했고요. 그러면 저는 제가 좋은 느낌을 받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기도 편하고 즐거운 캐릭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는 함께 작업한 배우들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영화 '퍼펙트게임'에서 호흡을 맞췄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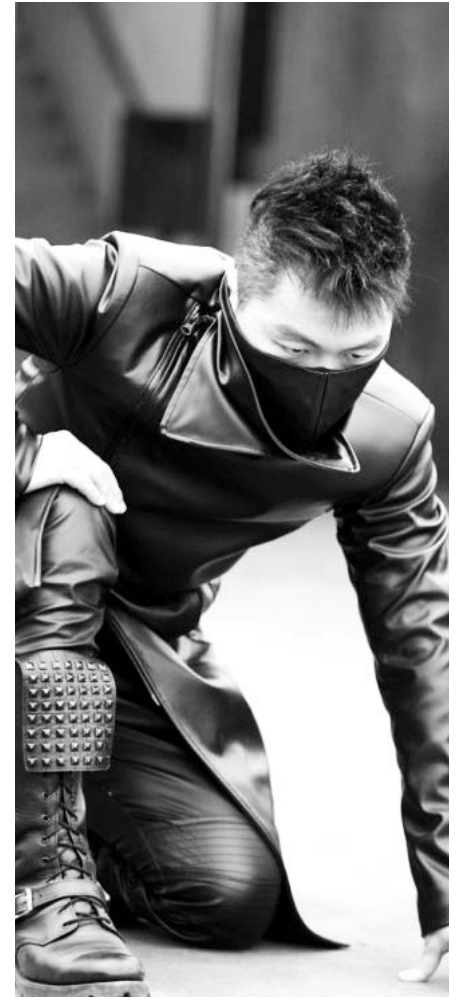
번 작품에서는 부자로 만난 배우 손병호는 작업장의 '기쁨 바이러스'라고 했다. "평소 촬영장에서 대기할 때 늘 즐겁게 임하며 촬영장에 기쁨 바이러스를 퍼뜨려주세요. 그렇게 현장에서 잘 이끌어주시는 부분은 후배로서 배우고 싶습니다. 사실 영화 '바람의 파이터'를 이후 액션을 다시는 찍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액션이 자신이 없었고 이제는 몸도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손병호 선생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라마 '히어로'는 100% 사전제작으로 촬영이 이뤄졌다. 양동근은 사전 제작의 장점으로 '휴가분함'을 꼽았다.

"배우들이 영화를 (드라마에 비해) 선호하는 이유가 환경적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의 생방송처럼 찍는 압박한 일정에 적응되면 순발력이 생기는 하지만 에너지 소모가 많거든요. 이번 촬영도 방송날 시작했을 뿐 대본을 계속 기다리면서 촬영했지만 미리 끝내놓으니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합니다. 배우들과 스태프 모두 끝내놓고 공개하는 것이니 마음이 훌개분하죠."

'흑철' 캐릭터를 위해 15kg를 감량한 양동근은 헬스장에서 우연히 만난 K1 세계 챔피언 임수정 선수의 도움이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이라고 했다.

'히어로' 제작진에 잔에 따른 술이 얼어붙을 정도의 혹한에 촬영을 강행했다.



양동근은 고생한 만큼 완성도 있는 작품이 나왔으며 흠뻑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8일(음 3월 7일 戊子)

子	36년생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매여 있다. 48년생 봉사의 기쁨은 행하는 이만이 알 뿐. 60년생 이리저리 지지지도 못할 수다. 72년생 일석이조의 행운이 따른다. 84년생 긍정적인 것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42, 34
丑	37년생 돈으로 인해 울고불고할 일이 있다. 49년생 수용할 것은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61년생 결정됐으면 지체 없이 실행하라. 73년생 손가락을 다룰 일이 있다. 85년생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것이 중요. 행운의 숫자 : 59, 26
寅	38년생 좇는다고 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있어야 한다. 50년생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이해할 수 있다. 62년생 내려버려 두면 오합지졸이 될 수다. 74년생 진정한 자선이란 희생이 따르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94, 60
卯	39년생 과실을 깨끗이 인정한다는 것은 참된 길을 여는 길이다. 51년생 서행과 안전 운전을 명심해야겠다. 63년생 노후 된 것은 교체하는 것이 좋다. 75년생 알뜰살뜰한 삶의 자세가 부귀를 이루느니라. 행운의 숫자 : 12, 02
辰	40년생 명상 속에서 방도와 해안을 찾을 수 있느니라. 52년생 봄 햇살과도 같이 따스한 평안함이 있겠다. 64년생 현재는 힘들겠지만 머지않아 보람을 느낄 수 있으리라. 76년생 덕을 베풀면 복을 받는다. 행운의 숫자 : 79, 45
巳	41년생 가장 직접적인 일부터 먼저 처리하라. 53년생 어려움은 잠시 일 뿐이니 용기를 잃지 말라. 65년생 출발 전에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야겠다. 77년생 생기발랄하게 활동하면 크게 얻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7, 06

午	42년생 타인을 과잉 경계한다면 자신의 순수성을 의심해 볼 일이다. 54년생 소박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겠다. 66년생 말만 잘 하면 큰 행운이 따를 수다. 78년생 정도를 걷는다면 만사여의하리라. 행운의 숫자 : 03, 43
未	43년생 정치하게 처리할 것과 대충할 것이 따로 있다. 55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이다. 67년생 당사자를 잘못 찾아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79년생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 하자. 행운의 숫자 : 22, 80
申	44년생 공공 장소에서 예절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겠다. 56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행하라. 68년생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 완성도가 높아지리라. 80년생 괴롭게 열려할 일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7, 95
酉	45년생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포용해줄이 좋다. 57년생 초심으로 일한다면 무난하리라. 69년생 중차대한 정보에 접한다. 81년생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은 정신적 낭비이리라. 행운의 숫자 : 69, 50
戌	46년생 주도하는 이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줘라. 58년생 반가운 이로부터 받는 것이 있을 수다. 70년생 부주의한다면 소름이 오싹할 일이 있으리라. 82년생 시작이 올바른 마무리도 좋다. 행운의 숫자 : 44, 08
亥	47년생 좋아하는 이 앞에서 차마 내색을 못 할 처지에 놓인다. 59년생 책임은 상호 간에 있음을 알라. 71년생 기본적인 뜻에 충실하면 그만이다. 83년생 저속한 항간의 행위에 민감할 필요는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89, 7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EBS		EBS	
06:00 헬스 투데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한복선의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요리>	15:35 척척폭죽 처킨터 <한복선 요리원 1~3(재)>	20:25 지식채널e
06:30 성공인생 후반전	10:30 60분 무료 <내 아이 영아두뇌 만들기 1편>	16:00 당동명 유치원 1~3(재)	20:30 EBS 뉴스
07:00 제로니모의 모험	12:00 EBS 정오 뉴스	16:30 숲 속 대장 물루(재)	20:50 세계테마기행 <다시부터 아프리카의 심장 콩고민주공화국 3부>
07:30 꼬마 평민 핑구	12:10 연중기획 <폭력없는 학교>	16:45 키득키득 실험실(재)	21:30 한국기행
07:45 뽀뽀뽀 뽀로로	13:00 세계테마기행 <시카이 공존하는 땅 베트남 3부>	17:00 방구대장 뽀뽀(재)	21:50 EBS 다큐 프라임
08:00 당동명 유치원 1~3	13:40 EBS다큐프라임 <함께하는 한국어>	17:10 디보와 노래해(재)	22:40 극한직업
08:30 꼬마버스 타요	14:30 함께하는 한국어 <외국어 영역>	17:15 꼬마버스 타요(재)	23:10 다큐10+ <위기의 바다, 해양생태계를 구하라!>
08:45 키득키득 실험실	15:00 배울 너머	17:30 신나는 오정학교(재)	24:00 지식채널e
09:00 방구대장 뽀뽀	15:10 원더펫	17:45 뽀뽀뽀 뽀로로(재)	24:05 공부의 왕도
09:10 디보와 노래해요		18:00 생방송 토크 보너스 1~4	24:35 스페이스 공감
09:15 코코몽 2		18:50 외톨이를 친구들	
09:30 신나는 오정학교		19:00 오스카의 오아시스	
09:40 숲 속 대장 물루		19:10 제로니모의 모험	
10:00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19:35 선생님들이 달라졌어요	

굿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p>Let's keep in touch 계속 연락하면서 지냅니다</p> <p>A : I hear you're moving to L.A. B : Yes, I found a good job over there. A : Well, I'll certainly miss you. B : Let's keep in touch.</p> <p>A : LA로 옮기신다면서요. B : 네, 거기서 좋은 일자리를 구했거든요. A : 그래요, 틀림없이 당신이 보고 싶을 거예요. B : 계속 연락하면서 지냅니다.</p> <p>* move to ~ ~로 옮겨가다 * keep (be, get) in touch (with somebody) = (~와 편지·전화로) 연락하고 지내다[연락하다] * keep (be) in touch (with something) = (특정 주제·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을) 계속 접하다[알다]</p> <p>[출전] &lt;후한서(後漢書)&gt; 당동전(黨同傳)</p>	<p>黨同伐異(당동벌이) 무리 당, 한가지 동, 칠 벌, 다를 이</p> <p>당동벌이(黨同伐異)는 일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 뜻이 같은 무리끼리는 서로 돕고 그렇지 않은 무리는 배척함을 이르는 말이다. 후한(後漢)에서는 제4대 화제(和帝) 이후로 역대 황제가 모두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황태후가 섭정이 되고, 그 일족인 외척이 권력을 손아귀에 넣었다. 그 외척에 대항하여 이를 타도하는 역할을 주로 한 것이 환관의 세력이었다. 환관들은 신분 상승의 욕구 때문에 스스로 거세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집단의 결속력이 유달리 강하고, 사회적 책임이나 정치적 경륜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에 민감하였다. 또한, 초야로 숨어든 명망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해 모인 유학자 집단인 당인들이 외척이나 환관에 대항했다. 이렇게 선비 집단과 외척, 환관 세력이 서로 물고 물리는 정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다른 집단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예상되는 일이었다. 이를 가리키는 말이 당동벌이이다.</p> <p>[출전] &lt;후한서(後漢書)&gt; 당동전(黨同傳)</p>

니하오 쑹구위
<p>同志 tóngzhì 同志가 변했다</p> <p>지금은 없어진 용어지만 과거에 중국에서 同志라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에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시내외곽 유원지에서 만난 나이 든 어르신이 '동지'라고 저를 부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계급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선의에서 출발한 용어지만, 지금 사용하기엔 아주 존스럽고 예스러운 호칭이지요. 그런데 同志가 새로운 용어로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p> <p>중국인들과 무슨 말을 하다가 '他们俩是同志 - 재 둘이 동지야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세상이나 그 말이 동성의 의미로 쓰인답니다.</p>

오하오유 니혼고
<p>この頃は肥満の子供が多いそうです。 요즘은 비만인 애들이 많더군요</p> <p>A : うちの子は太りすぎて大変です。 B : この頃は肥満の子供が多いそうです。 A : 食生活が肉食に変わったからでしょう。 どうしたらいいですか。 B : 子供に野菜を食べさせたほうがいいです。</p> <p>A : 우리 애는 너무 살찌서 큰일입니다. B : 요즘은 비만인 애들이 많더군요. A : 식생활이 육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B : 애들에게 야채를 먹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p> <p>&lt;아스카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gt; http://www.kjasuka.co.kr ☎ 232-1503</p>